

그린자전거 교실 ‘수석 강사’ 근거 있었나

도, “규정 따른 것” 답했지만 실제로는 제시 못해
수당 차등 지급 알려지자 곧바로 중지 배경 해석
도 “담당 부서 변경 수석 위촉 이유 파악 어려워”

속보=제주도가 ‘그린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2년여 동안 ‘수석 부강사’(이하 수석 강사·1월 21일자 4면)를 뒀지만 당시 위촉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강사들이 반발한 직후 제주도에서 수석 강사제를 중단하게 된 것도 결국 별도의 짐 없이 꾸렸기 때문이라 는 해석이 제기된다.

2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자전거 교실 이론과 실기 교육은 제주도에서 매년 위촉하는 주 강사

1명, 보조 강사 3명이 맡아 왔다. 이 중에서 주 강사는 ‘재능 기부’로 참여하며 수당이 책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보조 강사 3명에겐 수당이 지급됐다.

문제는 2023년부터 기존 보조 강사 중 1명에게 수석 강사란 이름으로 수당이 차등 지급됐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강사들이 위촉 배경을 따지며 제주도 담당 부서에 항의하자 곧바로 수석 강사 자리를 없앴다.

자전거 교실 전직 강사는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청에 왜 수석 강사를 만든 거냐고 물었더니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수석 강사를 없앨 때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며 “수석 강사가 자전거 교실 신청자들에게 개강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전화를 일일이 거는 일을 하니까 수당을 올렸다고 한다. 수석 강사가 공무원 가족이었다는 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관련 규정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5년부터 사업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그 전에 수석 강사를 두게

진선희기자

성평등·가족복지 연구 과제
제주여가원, 외부 공모 실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 지역 성평등·가족복지 분야 정책 연구 과제 외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 지역의 ▶성평등·인권·노동 ▶인구·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 분야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대학·전문대학 등 학교와 그 부설 연구소에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연구 계약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법인에 한해 가능하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7일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6건 내외의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000만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문순덕 원장은 “이번 외부 공모를 통해 제주의 성평등과 가족복지 분야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요구가 발굴되고 정책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전남 여서도가 보이는 풍경 26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를 찾은 관광객들 너머로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관리 실태 점검 도, 30일까지 시공 실태·대금 지급 현황 등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토안전관리원·대한 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30일까지 주요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 관리 실태와 공사대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다. 소규모 현

장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현장 여건에 맞춰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현장 기술자 배치 적정성 ▶안전관리 체계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하도급 계약 공정성 등 5개 분야다.

점검 과정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

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보완 조치가 완료된 후 공정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안전과 품질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2만8550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혜택

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예산 확대·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이자 지원, 3만원 주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 16개 사업에 623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가 확정한 ‘2026년 주거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이를 통해 도내 2만85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에 164억원을 배정해 7976가구의 주거 안착을 돋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회초년생 주택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와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3만원 주택 등 10개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최대 1.5%(3억 원 이내)까지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7억원에서 29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6개 사업에 459억원을 투입해 2만574가구를 지원한다.

사업별 접수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내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오소범기자

제주 학교 안전사고 매년 증가 추세

대면수업 이뤄진 2020년 이후 계속 증가… 3배 ↑

학생 100명당 사고 건수도 1.47건→5.16건으로 늘어

제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42.7%)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4735건(32.0%), ‘염좌·삠 등 신체 충격’ 2146건(14.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4년 새 증가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 안전사고 분석 통계’에 따르면 도내 학교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1만478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했던 2020년 12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720건)보다 감소했으나, 대면 수업이 다시 이뤄진 2021년 2163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3109건, 2023년 3942건, 2024년 4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생 100명당 사고건수도 2020년 1.47건에서 2021년 2.50건, 2022년 3.60건, 2023년 4.63건, 2024년 5.16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학교급별 안전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6306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5026건(34.0%), ‘고등학교’ 2766건(18.7%), ‘유치원’ 645건(4.4%), ‘특수학교’ 41건(0.3%) 등 순이었다. 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물리적인 노출’이 6314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대한민국해병대 제주의 자랑스런 아들



좌 태 국 장군
(한경면 고산리 출신)

(부 : (故)좌창옥 · 모 : (故)김경석)

제주의 아들이 해병대 장군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좌태국 장군 제주지역군 사령관,
현우식 장군 해병대 2사단 부사단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사) 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원일동은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무적 해병대의 “상승불패 정신”으로 더욱 정진 하시옵길 기원 드립니다.



현 우 식 장군
(제주시 화북동 거로 출신)

부 : 현창돈(주)삼화여객 전무이사 · 모 : (故)서한옥, 박영순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강 대 성

**제 주 시 지 회 회장 고 현 배 외 회원일동
서 귀 포 시 지 회 회장 부 영 인**